

책과 출판에 관한 흥미로운 진기록

도서출판 김형선 펴냄「1993 기네스북 - 한국판」

전세계 인류가 내놓은 각종의 신기록과 부분별 최고기록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기네스북」이 최근 출간됐다. 이번 책은 세계기네스북으로는 39번째 책으로 한국판은 판권계약을 맺은 91년 이후 두번째 책이 된다. 따라서 「1993기네스북-한국판」(도서출판 김형선)에는 최신의 2만여종의 세계기록과 함께 한국 기네스협회가 공인한 400여 한국 최고기록들도 수록,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기록이 가장 풍성한 스포츠를 비롯 오락, 경제, 예술, 우주, 생물, 인간생활 일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진기록의 대백과사전인 「기네스북」은 1855년 8월 영국에서 첫 출간된 후 40개국에서 262종류로 동시출간되고 있는 책. 기네스북은 기네스북 그 자체로도 각종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국도서관에서 가장 잘 분실되는 책,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 여태까지 판매된 책의 양을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 168배가 넘는 것 등이 그것. 또한 '기네스'라는 이름이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한때 최고의 맛을 자랑했던 맥주의 이름이란 것은 기네스다운 의외의 유래다.

기네스북에는 책과 출판 문학에 관련된 흥미로운 진기록들도 다수 수록돼 있는데 그 중 몇개를 발췌 소개한다.

■ 最小의 서적

크기 1mm×1mm에 22페이지의 「올드킹 코울!」이라는 동화책으로 스트라스클라이드의 글레니퍼社가 1985년 3월에 85부를 제작했으며, 페이지는 바늘로써만 넘길 수가 있다.

■ 最高價의 책

「The Gospel Book of Henry the Lion, Duke of Saxony」는 226장으로 되어 있는데, 1983년 런던 소더비경매장에서 814만파운드에 팔렸다. 이 책은 1170년 修士 해리만이 쓴 필사본으로 크기가 34.3cm×25.4cm이고 헤르만 압스社의 한스 크라우스가 샀다.

인쇄된 책으로서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1455년 독일 마인즈에서 인쇄된 「구텐베르크의 구약성서」로 1987년 10월22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도쿄의 서점상 마루젠社에게 539만달러에 팔렸다.

■ 가장 긴 편찬 기간

표준 독일어 사전 「Deutsches Wörterbuch」는 그림 형제가 1854년에 시작하여 1971년에 끝났다. 또한 예수회의 장 드 블랑이 1643년에 착수한 「성인 전집」은 교회력표순에 나타난

「1993 기네스북-한국판」에는

최신 2만여종의 세계기록과 함께

한국기네스협회가 공인한 400여

한국최고기록들이 수록돼 있다.

「...기네스북-한국판」에는

세계최대의 사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 최장기 대출도서 등 책과 출판,

문학 등에 관한 갖가지의 세계기록 및

국내의 진기록들도 수록돼 있어,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성인의 전기를 한 사람씩 정리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1925년 11월에 관련된 성인의 전기를 겨우 마쳤고, 1940년 12월에 관련된 성인의 서문이 발간되었다.

옥스포드대학 출판국은 1949년 12월부터 1084년 12월까지 35년간의 교정기간을 거쳐 「콘스터블의 진술」 개정본을 출판하였다.

■ 最古의 원고료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거주하는 데보라 슈나이더 부인은 1958년에 폴리머드 자동차 광고문 컨테스트에 응모하여 25단어로 된 그녀의 문장이 당선됨으로써 죽을 때까지 매일 5백달러씩 지급받기로 정해진 상을 수상했다. 보통의 수명을 누린다고 할 때 1단어당 1만2천달러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녀의 생전에는 이 문장을 전제할 수 없으며 1991년 현재 1단어당 8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최장기 대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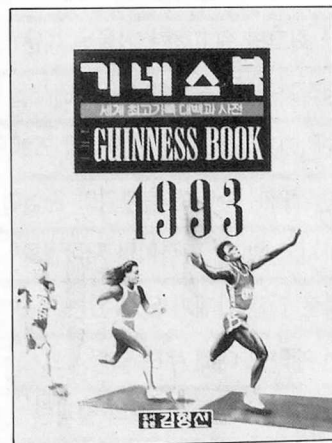
1609년 독일에서 출간된 「Archbishop of Bremen」이란 책으로 로버트 윌폴이 1667년에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학에서 빌려 갔는데, 그후 존 플람브 교수가 노퍽의 마르케스 도서관에서 발견, 288년 후에나 되돌려 주었다. 연체료는 정확하지 않다.

■ 가장 느리게 팔리는 책

가장 느리게 팔리는 책의 영예는 데이비드 윌킨스의 콧두어 신약성서의 라틴어 번역판(1716년 옥스포드대학 출판, 500부)일 것이다. 한 권이 팔리는 데 평균 20주가 걸린 셈으로 인쇄본이 다 팔리는 데 총 191년이 소요되었다.

■ 최대의 도서관

워싱턴의 미 의회도서관(1800년 4월24일 설



립)은 15,374,079종의 분류된 서적과 비분류된 83,262,865종의 자료를 포함한 98,636,944종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건물면적은 2,654,240㎡이며 서가의 길이는 925,4km에 달한다. 1991년 이 도서관의 직원은 5,045명이었으며 91년 연간 방문객 및 사용자의 수는 910,565명에 달했다.

개인 도서관으로서 가장 큰 뉴욕 5번가의 뉴욕공공도서관(1895년 설립)은 바닥공간면적 4만8천8백㎡이고 서가길이가 141.6km이다. 82개의 지점 도서관을 합쳐 총 13,887,774권의 책과 18,349,585 원고료, 그리고 38만1,645장의 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 최고의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으로 1815~1975년 사이에 25억권이 출판되었으며, 그중 15억권은 성서공회에서 발간된 것. 1976년 이래 현재 영어판 신구약성경(성서공회판)은 1억1,800만권이 출판되었으며 킹 제임스 역본(연간 1,300만권 발간)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14종의 역본들이 있으며, 322개국어(세분하면 1,656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참고로 레닌의 저서는 222개 언어로 번역됨.) 가장 오래된 성경 출판사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국으로 1591년 제네바 역본을 출판하였다.

■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어떤 한 작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두 작품을 베스트셀러 소설로 들 수 있다. 재클린 수잔(어빙 맨스필드의 부인, 1921~1974)의 「인형의 계곡」(1966년 3월 초판발행)으로 1987년 3월 현재 2871만2천부가 팔렸으며, 출판 후 6

주만에 680만부가 팔린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6년판) 역시 2,8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알리스터 맥린(1922~1987)이란 작가는 평생 30여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 28권이 영국에서만 각각 1백만권 이상씩 팔렸다. 또한 그의 책은 28개국어로 번역되었고, 그 가운데 13종이 영화되었다. 그러니까 맥린의 책은 18초당 1권씩 팔린 셈이 된다.

■ 最多作 작가

「Billy Bunter」의 저자 찰스 해롤드, 일명 프랭크 리처드(1876~1961)는 일생 동안 7천2백만~7천5백만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한창때(1915~1940)는 소년 주간지 켄(1907~1926), 마그네트(1908~1940) 보이즈프렌드지에 1주당 8만 단어까지 썼다.

■ 최다 출판거절 작품

최다 거절을 당한 작품 기록은 빌 고든의 「당신은 오하이오에 몇 권의 책을 팔 수 있는가?」라는 책으로서 1983년 10월에서 1985년 11월 사이에 176번(그의 알려지지 않은 다수 있음)이나 출판거절을 당했다.

■ 가장 많은 오자

1978년 8월22일자 「The Times」지의 19페이지에 교황 바울 6세에 관한 글로 5 1/2짜리 칼럼에 97개의 오자가 있었다.

이밖에도 세계최대의 사전, 세계최대의 출판사,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소설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내판」에서는 우리의 최고 출판 기록들을 살필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책은 대유공전 박암중(37)교수가 91년 제작한 2.5×2.5cm 크기의 쏘살책 「금세기의 위대한 30인의 디자이너」이고, 최단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은 대우그룹 김우중(55) 회장의 수필집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로 89년 8월 1일 초판을 찍은 뒤 161일만에 1백만부가 팔려나가 단행본 출판사상 최단시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저서를 출판한 사람은 일방 서경보 스님으로 1948년 「불교입문강화」라는 책을 펴낸 이후 울초 출간한 「화엄경 약찬계사경」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총 677권(선시집 142권, 기타불교서적 535권)의 책을 출간, 1위에 올라 있다.

— 정혜옥 기자